

<2018년 4월 15일 주일말씀>

**내게 와라. 내게 배워라.
가서 실천하며 가르쳐 주어라**

본 문 마태복음 11장 29절

『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
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』

1. <주>께 와라. <주>께 배워라. 그리고 실천해라. 그리고 모두에게 가르쳐 행하게 해라. 그래야 <주의 제자>가 되고 <사도>가 되고, <사랑하는 신부>가 된다.
2.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대상>이 되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께 배우고 실천해야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 되어 살 수 있다.
3. <배우지 않고 행하는 자>는 ‘하나님과 성령과 주의 마음’에 맞게 행할 수 없다.
4. <주>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배우고 행했기에 ‘구원의 역사’를 펼 수 있었다.
5. 성경의 모든 말씀을 축소해서 한마디로 한다면, “하나님과 성령

님과 주께 와라. 배워라. 그리고 실천해라.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전해 주어라. 그리함으로 <제자>도 삼고, <하나님의 사람>이 되게 하여 시대 역사를 펴 나가라.” 함이다.

6.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배우지 않고서는, 할 수 없다.

7. <알아야 면장을 한다>라는 말은 “알아야 담장을 벗어난다.” 라는 말이다. 곧, 안 배우고는 못 한다는 말이다.

8. 배워야, ‘그 차원, 그 주관권’ 을 벗어난다.

9. 배워야, ‘메시아’ 도 할 수 있고, ‘목사’ 도 할 수 있고, ‘지도자’ 도 할 수 있다.

10. <안 배운 자>는 ‘따르는 자들’ 을 인도할 수 없다.

11. 세상에는 ‘종교’ 에 대해서, ‘정치’ 에 대해서, ‘세상 삶’ 에 대해 가르치는 자들이 많고 많지만 만족하게, 완전하게, 온전하게 가르치는 자가 없다. 고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<메시아>, <선지자>, <사사>를 가르치고 보내시어 그들이 ‘하나님의 육’ 이 되어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.

12. <월명동 자연성전>도 배우고 해야 될 것들이 많다. 그동안 잘한 것도 있지만, <안 배우고 한 것>은 결국 ‘필요 없는 일들’ 이 되었다.

13. <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마음>에 들게, 하나하나 ‘배우고’ 해야 된다.
14. <신앙생활>도 ‘배워야’ 행할 수 있고, ‘배워야’ 생명들을 가르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.
15. <기성인들>은 ‘예수님’을 중심해서 배웠기에 ‘신약말씀’을 알았지만, <구약인들>은 ‘신약말씀’을 몰랐다. <신약의 주인>은 ‘예수님’이시니, <예수님>이 가르쳐야 알 수 있다.
16. <구약인들>은 ‘모세의 율법’을 배우고 “다 됐다.” 했지만, 그것은 ‘구시대 구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’이었다. 하나님께서 <메시아 예수님을 중심해서 행하시는 일>을 배우고 알아야 ‘시대 구원의 역사’를 이룰 수 있었다.그러나 <구약 종교인들>은 ‘예수님’께 배우지 않았다. 고로 몰랐다. 결국 <모르는 사람들>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악평하고,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.
17. <이 시대>도 ‘시대 주’께 배우지 않아서 모르는 자들이 주를 답답하게 하고, 괴롭히고, 주가 십자가를 지게 한다. 고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“늘 가르쳐 주어라. 모이면 가르쳐 주고, 실천하게 만들어 주어라.” 하셨다.
18. <주>는 ‘머리’이니, <주>께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.
19. <기성의 교리>는 ‘시대’에 맞지 않는다. 결국 <기성>은 하나

님께서 시대 보낸 자들 받아들이지 않은 고로 ‘성경의 온전한 말씀’을 전하지 못했다.

20. <이단들>도 ‘이 시대 하나님의 뜻’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.
결국 그들은 ‘세례요한 격’이 되어 끝난다.

21. <아는 자들>이 시대 역사를 펴 나간다.

22. <배우고 아는 것>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인지 깨달아라.

23. <섭리역사>는 ‘시대 보낸 자’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
배워서 삼위가 원하시는 시대 말씀을 전했다. 그 말씀을 듣고
행함으로 <휴거>를 이루고, 이제는 ‘완전한 부활의 때’를 맞
았다.

24. <모르는 자>는 ‘모르는 채’로 끝난다.

25. <모르는 것>이 얼마나 원통한 일인지 깨달아야 된다.

26. <주의 도>를 배우고, <주의 진리>를 배워야 된다.

27. <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않은 자들>은 시대가 가도 모
른 채, 매일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.

28. <배우고 안 자들>은 매일 주와 함께 ‘시대의 뜻’을 펴 나가
고, ‘휴거 차원’을 높이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.

29. <배우는 데> 있어서 일어나 ‘빛’을 발하고, ‘달리고 뛰어야 될 때’ 다. 그때 곧, 지금이다.
30. 약속대로 가르쳐 줄 테니 배워라.
31. <주의 가르침>은 ‘영원한 가르침’이며 ‘온전한 가르침’이다.
32. <그동안 해온 것>을 두고 “배웠다.” 하지 말고, 다시 배워야 된다. <만사에 하는 모든 일>을 배워야 된다.
33. <지금 이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>을 배워야 된다. 가르쳐야 된다. 실천해야 된다.
34. 배우기 위해 더 기도하고, 성령께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해라.
35. (성령) 내게 배워라. 가르쳐 주리라.
36. 많은 사람들이 <하나님의 일>을 돕고자 하나, ‘할 줄 몰라서 못 하는 자’가 대부분이다.
37. 배우면, 할 수 있다.
38. <생명을 지도하는 자, 생명을 가르치는 자>도 배우고 나서 철저히 알고 가르치면, 모두 ‘그 급의 사람’으로 만들 수 있다.

39. <주>께 배우면, ‘주의 급의 대상’ 이 된다.
40. <배울 때>는 제대로 배워야 된다. <자기 주관>을 가지고 배우면 안 된다.
41. <배울 때>는 ‘하늘 주관, 주의 주관’ 을 넣고 배워야 제대로 배울 수 있다.
42. 섭리사에 온 지 오래 되었으나, 혹은 섭리사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나 <배우고 행하는 자>가 ‘주의 일’ 을 할 수 있다.
43. <시대 보낸 자>도 세상에 와서 50년 이상 배웠다. 배워서 알기에 할 수 있다.
44. <지도자들>이 안 배워 놓고, 큰소리치며 자기 생각대로 하니, 하나님도 주도 보고 책망한다.
45. <앵무새>도 ‘말’ 을 배우면 그대로 한다. 안 배웠는데, 말을 잘하는 앵무새는 없다. 모두 배워야 된다.
46. <주>께 배우고 실천하고 가르쳐 주어, ‘지식의 하나님, 지혜의 하나님’ 을 증거하여라.
47. <든 것> 없이는 ‘내 놓을 것’ 이 없다. 자꾸 배워야 ‘머리에 든 것’ 이 생기고, 자꾸 내 놓게 된다.

48. <시대 말씀>을 보면서 연구하며 배우고, 진실로 기도하고, <성령>은 ‘주를 증거하는 신’이니 자꾸 성령께 간구하며 함께해 달라고 해야 된다.
49. <주>께 제대로 배우고, 실천하고, 가르쳐 줘야 된다.
50. 가르쳐 줄 때는 재미있게 가르치되, 권위있게 가르쳐야 된다. 그리함으로 ‘시대 보낸 자’를 깨닫고 알게 해 줘야 된다.
51. 배우지 않고서는 <시대>도, <주>도, <하나님의 뜻>도 알 수가 없다. 철저히 배워야 된다.
52. <형식>과 <외식>으로 하면 안 된다. <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>이니,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야 된다. 제대로 못 하면, 심히 고통을 받게 된다.
53. <잘 배우기>, <잘 행하기>, <잘 가르치기>다. 그래야 많이 얻고, ‘들어가도 복, 나와도 복의 삶’이 연속된다.

◎ 말씀 마쳤습니다.